

“힘찬 출발! 꿈과 희망의 2011”

2011년 1월 3일 본사 교육장 및 각 공장 단위로 2011년 새해의 힘찬 출발을 위한 사무식이 열렸다. 선보인의 10계명 낭독, 대표이사 신년사, 결의문 낭독 그리고 결의를 다지는 순서로 진행된 사무식에서 우리 회사는 2011년 해방 및 육상 모듈 전문 초우량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하여 기존 제품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여 목표 달성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사랑하는 선보기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꿈과 희망의 신묘년 새해 새아침이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선보기자 모두에게 건강과 사랑, 축복이 함께하는 한해가 되고, 안전사고 없는 건강한 작업장에서 항상 새로운 것에 도전하여 최선을 다하는 직장문화를 조성하여 풍성한 성과를 거두는 한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토끼는 치밀하고 영리한 동물입니다.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명석한 눈으로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치밀한 계획을 세워 항상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안식처를 만들어 적들로부터 자기 자신을 방어하는 지혜의 동물입니다. 선보기자 임직원도 시행착오를 되풀이 하지 않을 완벽한 계획과 실천으로 기존제품의 경쟁력을 극대화시켜 안정 속에서 새로운 사업영역을 개척하여 도약의 기반을 조성하고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만드는 기회의 신묘년을 맞아 우리 모두 한마음으로 힘찬 출발을 시작합니다.

매출목표달성과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전장에 나서는 장수의 마음보다 더 강한 비장한 각오와 마음으로 신년화투를 유소작위(有所作爲)로 정했습니다. 유소작위는 해야 할 일을 열심히 준비하여 뜻을 이룬다는 말로 올 한해는 개인과 조직에 주어진 목표에 대해 치밀한 계획과 실천방법을 세워 개인과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선보인의 10계명과 선보인의 결의문을 직장생활의 기본으로 삼아 우리 스스로 정한 목표를 기쁘고 초과 달성하는 새로운 원년이 되도록 우리 모두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사랑하는 선보기자 여러분! 금년도 매출목

표는 2008년 매출목표 수준인 1,700억 원으로 정했습니다. 추수가 하락, 신제품개발과 해양 프랜차이즈 부진, 주연의 여건을 충분히 반영한 실현가능한 목표로 각 조직이 스스로 정하고 목표달성을 결의하였습니다. 지난해 마이너스 성장의 아픔을 되풀이 하지 않고 조직의 안정 속에서 재정장외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목표입니다.

위기와 생존의 치열한 경쟁에서 승자가 되기 위해 무사안일 한 사고를 깨부수고 무에서 유를 창조한 위대한 선보인의 정신으로 재무장해야 합니다. 본인은 선보인의 열정과 정열, 끝없는 도전정신으로 반드시 해내고야 마는 선보인의 의지와 능력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선보기자 여러분! 위기와 시련을 극복하고 재도약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지키고 실천해야 할 주요사항을 당부 드립니다.

첫째, 기존제품 경쟁력을 배가시킵시다.

지속적인 성장으로 인해 현실에 안주하는 무사안일의 사고와 우리가 최고라는 자만심을 버리고 기존제품의 경쟁력강화를 위해 제품표준화, 극한의 원가실현, 생산성을 배가시켜 경쟁우위를 점하고 안정 속에서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고정관념을 버리고 지금의 방법이 무조건 잘못되었다는 사고로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보완해 나가야 합니다.

둘째, 변화를 즐기며 항상 새로운 것에 도전합니다.

기존제품에 안주한다면 퇴보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한 선보정신으로 우리 모두의 미래를 보장받기 위해 신제품개발, 해양플랜트사업 활성화, 신 시장 개척에 주력해

야 합니다. 도전과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변화와 새로운 것의 도전을 즐기면서 끊임없이 도전하는 도전정신으로 재무장합니다.

셋째, 조직별 책임경영체제를 정착시킵시다.

각조직의 장은 사장이라는 사고와 마음가짐, 비장한 각오로 조직과 공장을 이끌어 나가야 합니다. 올해는 책임경영체제를 정착시키기 위해 연공서열을 파괴하고 정에 이끌려 진급연수가 되면 승진되고 성과급도 크게 차등 없이 지급되는 관행에서 벗어나 능력위주, 성과중심으로 모든 평가방식을 바꾸어 나가겠습니다. 조직의 장은 주단위, 월단위로 계획을 점검하고 실행, 확인, 보완/피드백을 통해 최대의 성과를 거두어 나오는 조직 없이 모든 조직이 풍요롭고 풍성한 결실을 거두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낭비 최소화입니다.

실패비용이 감소되었다고는 하나 아직도 재오작, 누락, 미반영으로 발생하는 재작업, A/S를 획기적으로 줄이고야 드소요납기를 파악하여 작업계획을 수립하여 완성품의 대기비용을 없애야 합니다. 그리고 재도장, 2중 작업, 자재 방치, 사용가능한 자재 재활용과 사무용품, 불필요한 에너지 낭비 등 낭비요소를 최소화시켜 우리의 경쟁력을 키워 나갑시다.

다섯째, 무재해 작업장 실현입니다.

사고 없는 무재해 작업장을 다함께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제품생산에 앞서 작업장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안전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우수한제품을 생산할 수도 생산성향상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모든 작업의 기본은 안전입니다. 올해는 안전을 기본으로 환경과 보건을 최우선으로 하겠습니다.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안전사고를 유발하거나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조직이 있다면 징계조치와 함께 승진과 성과급 평가대상에서 제외시킬 계획입니다.

사랑하는 선보기자 여러분! 오늘 본인이 당부 드린 사항은 새로운 것은 없습니다. 수년전부터 지속적으로 언급한 내용이니 올해는 우리 모두 반드시 지키고 실천하여 우리 모두의 미래를 보장받는 기회 장으로 승화시켜 나가십시오.

지금까지 여러 차례 언급했듯이 우리는 무에서 유를 창조한 위대한 선보인입니다. 정해진 것은 반드시 지키고 실천하여 우리 모두 풍요롭고 풍성한 결실을 거두어 “보디나는 삶”의 가치를 구현하고 더 큰 행복을 추구하는 기업 건설을 위해 우리 모두 한마음 하나 되어 우렁찬 함성과 박수와 함께 꿈과 희망의 달을 올리고 우리 다함께 한마음 하나 되어 신묘년의 힘찬 행해를 시작합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 1월 3일
대표이사 최 금 식

김강수 고문 취임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신성장 동력 개발과 영업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



이번에 우리 회사에 취임하게 된 김강수 고문은 대우조선해양(주)의 생산총괄 부사장과 STX조선해양(주) 대표이사를 역임하는 등 이미 조선업계에서는 알려진 화려한 경력의 실력자이다.

김강수 고문은 “조선소 및 중공업 회사에서의 충분한 경험을 바탕으로 신성장 동력인 해양사업과 플랜트사업 그리고 신규 사업 개발을 통해 선보의 사업을 다각화하고 새로운 도약을 하는데 기여하고자하며, 믿음과 신뢰를 기본으로 고객친화에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고 우리 회사에 오게 된 계기를 밝히며 사원들과 그 꿈을 함께 이룩해 나가고 싶다고 전했다.

이어 김강수 고문은 특강을 통해 단순히 더 많이 일을 하라는 노동 생산성의 강화만으로는 더 이상의 생산성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신바람나는 회사와 인격 존중 관리를 강조하였다. 또한 사원들이 남기일 뿐 아니라 작업에 관한 자발적인 시간 준수가 필요하

고, 치공구 개발과 함께 생산 시설의 효율적 투자와 관리 시스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강수 고문은 “회사에 근무하면서 돈을 버는 것도 좋고, 진급도 좋고 명예를 얻으려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자신의 일에 성취감을 느끼며 사회와 회사에 기여하는 일도 중요하다. 하지만 무엇보다 자신의 일이 즐거워야 한다. 자신이 맡은 일을 받고 맡은 생각을 가지고 즐기며 업무 효율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라며 사원들에게 당부의 말을 전했다.

앞으로도 김강수 고문이 취임 후 지속적인 활동으로 우리 회사의 나아갈 길을 밝혀 주길 기대해본다.

삼성중공업 이세혁 기술총괄 부사장 및 김종윤 상무 당사 방문



지난 1월 10일 삼성중공업 이세혁 기술총괄 부사장 및 김종윤 상무님이 협력업체 공장실사와 상호 협력 증진을 위하여 우리회사를 방문하였다.

이세혁 부사장은 본사, 다

대 1공장, 무평공장을 차례로 방문하였으며, 특히 본사 설계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설계인원의 전문성 및 잘 구축된 전산환경을 높이 평가하였다.



장명우

상임고문

임직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현명한 토끼는 항상 세 개의 굴을 준비한다는 고사처럼(狡兔三窟) 우리 모두가 영명한 능력을 발휘하고 건강과 웃음이

넘치는 한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일전 중무식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작년 한해는 정말 어려웠습니다. 예상 했던대로 조선 산업 불황이 너무 심각하여 주주 및 매출 목표 미달은 물론이고 작업량의 불균형으로 정상 조업마저 위협받았으며 기대했던 해양산업과 신규 사업진출에도 뜻대로 되지 않아서 큰 실망을 안겨주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선보기족은 어려움을 떠나가 되는 저력을 보여주었고 모두가 자기 책임을 다하려는 부단한 노력 덕분에 회사경영에는 큰 흠을 남기지 않고 마감할 수 있었습니다. 회사도 이러한 여러분의 노고에 보답하고 새해에도 더 큰 도전에 두려움 없이 나서자는 격려를 담아 실적에 연연하지 않는 성의를 표시할 수 있었으며 이마져도 여러분께 감사한다는 인사를 드렸습니다. 임직원 여러분! 새해에는 우리 모두 한사람 한사람이 마음을

짐을 더욱 굳건히 합시다. 세상만사가 사람의 마음 속에 있습니다. 달력이 바뀌어 새해가 된 것이 아니며 종이 위에 적어둔 목표(KPI)들이 계획되는 것이 아니라 새해라는 의미도, 일년이라는 시간도, 그 일년간의 계획도 모두 자기 마음 속에 있습니다. 사원이 굳건하지 않으면 회사가 굳건할 수도 없고 사원이 만족하지 않으면 회사도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새해에는 우리 모두 자기를 사랑합시다. 세상에서 자기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입니다. 자기가 사랑스러울 때는 자기가 무엇을 이루었을 때입니다. 자기를 육체적, 정신적, 능력적으로 마음 먹은대로 발전시키는 일은 자기를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사원 한사람 한사람이 발전하지 않으면 회사는 어떤 방법으로도 발전할 수 없습니다. 자기 사랑이 자기를 발전시키고, 자기 발전이 회사와 가정을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됩니다. 새해에는 우리 모두 모든 일을 정확하게 해서

다. 정해진 대로, 약속한대로, 계획한대로 정확하게 한다는 것은 자기를 발전시키고 동료들을 돕는 일입니다. 동료를 잘되게 돕는 것은 자기가 잘될 수 있게 도움을 받는 길입니다. 정해진대로 하지 않고, 약속을 어기고, 계획대로 실천하지 않는다면 불분명, 불량품과, 혼란이 있을 뿐입니다. 임직원 여러분! 우리 모두 자기 목표를 분명히 하고, 자기개발에 최선을 다하며 정해진 일을 정확하게 처리한다면 금년 일년은 각자와 회사에 큰 변화의 한해가 될 것이며 우리 스스로를 사랑하는 공자를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2011년 토끼해에 그 영롱한 눈처럼 빛나는 아침해와 더불어 하루하루 일상을 열어가고 저녁에는 그릴처럼 포근한 가족과의 시간이 365일 반복되기를 다시 한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최상식

부사장

존경하는 선보기족 여러분. 2011년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올해에는 선보기족 모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고, 선보기족 크게 발전하는 한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보다 나은 삶의 가치를 구현하고 더 큰 행복을 추구하는 기업” 건설을 위해 우리는 지난해 매출 2,000억 원 달성에 도전하여 외부의 악재, 준비 부족과 역량을 결집하지 못해 실패의 쓴 잔을 마셨습니다. 매출 목표달성과 도약을 위해 SUNBO Family 총괄 대표이사님께서 신년화두 유소작위(有所作為)를 내리셨습니다. 유소작위는

해야 할 일을 열심히 준비하여 뜻을 이룬다는 말로 올 한해는 개인과 조직에 주어진 목표에 대해 치밀한 계획과 실천방법을 세워 개인과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선보인의 10계명과 선보인의 결의문을 직장생활의 기본으로 삼아 우리 스스로 정한 조직의 목표를 100% 달성하는 새로운 원년이 되도록 우리 모두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합시다. 올 한해도 희망의 도전에 흔들림 없이 전진합시다. 선보기족 모두의 역량과 열정에 선보의 꿈과 희망을 싣고, 우리의 열정적인 에너지를 결집해 위기의 조신 불황을 극복하고, 우리의 미래를 보장받는 희망의 2011년을 위해 정

해진 Process는 반드시 지키고 실천합니다. 선보기족 여러분! 총명하고 지혜로운 토끼는 영롱한 눈망울을 가진 동물입니다. 출근하고 싶은 회사, 생동감 넘치는 조직을 만들기 위해 모두 자기 자신은 사랑하는 조직과 동료들을 배려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조직의 목표는 반드시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도전이 풍성하고 넉넉한 결실이 되어 돌아오는 한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늘 건강하세요.



김진수 전무

영도공장 담당

선보기족 여러분, 2011년 내내 건강하시고 우리의 직장가 가정의 항상 역동적인 해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흔히 연말연시가 되면 우리 다들 나만의 철학이 되어 흘러간 귀재에 대해서 회환과 연민을 하면서 직장가 가정에서 좀 더 질할 수 있었고, 좀 더 원만하였으면 하는 여러가지 만감을 혼자만의 칠판에 지었다 썼다를 반복합니다. 그러다 각자의 새해 roll model을 결심하고 비지출을 다시 한번 가다듬지요. 혹시 미중물이라고 들어봤는지요? 40여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네 집 또는

동네에서 우물물을 걷기 위해서 두레박을 쓰던지, 수동 펌프를 쓰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 펌프를 위해서 물을 한 바가지 붓고 열심히 저어야 물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상수도 시스템이 잘 되어 있지만 그때의 그 한 바가지 물을 미중물이라 하는데 결코 버려지는 게 아니고 내가 원하는 물을 얻기 위한 투자물인 것이죠. 무릇 세상이 모두가 언고자 하면 재화와 시간과 열정을 간절한 심정으로 몰입하여야만 심연에 있는 결과물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절대 거져 얻을 수 있는 것은 결단코 아닙니다.

선보기족 여러분, 우리 선보는 조선업의 어려운 환경 하에서 2010년을 비록 마이너스 성장으로 하였습니다만 2011년 이후를 재도전할 수 있는 잠재력을 다진 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더 이상 환경에 흔들리지 말고, 시행착오를 두려워하지 않는 프로페셔널한 장인정신으로 우리 선보의 '미중물'을 만들어 내자신과 가족이 만족하고 사회적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는 '선보family'를 만들게 다같이 2011년을 힘차게 뛰어봅시다.



장두생 상무

해양사업부

신년회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과 화목으로 가정이 화평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선보는 작년 국가 생산성 대상 대통령상을 수상함으로써, 대내외에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기반이 조성되었음을 입증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새해에는 이를 바탕으로 신사업에 투자를 늘려 새로운 도약을 시도할 때로 보입니다. 정부는 지식경제부를 통해 5개년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플랜트 핵심기재에 국산화를 본격적으로 착수하여 2015년에는 국산 조달을 45%, 수출 231억 달러 달성 목표를 천명하였습니다. 이에 지경부는 기술경쟁력 확보, 글로벌 마케팅 능력 극대화, 자원 인프라 확충등을 내세워 기재 국산화를 높여겠다는 방침입니다. 또 대우, 삼성, 현대중공업 등도 해양기재 국산화를 고양에 매우 우호적입니다.

우리 선보 해양사업부는 이를 기회로 활용하여 2015년 수출 500억 원을 목표로 정하였으며, 특히 금년은 SHWE 프로젝트의 MEG Regeneration Package와 Produced Water Treatment Unit 등 실제 업무가 시작되는 만큼, 내부 수행 조직을 강화하여 품질과 납기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여 고객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금 당장은 설계 능력이 없어서 제작 하청으로 시작하지만 5년 후에는 설계능력을 확보한 플랜트 기재 제작 공급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금년에도 VMB를 포함한 외국 설계회사의 합작/제휴를 시도/추진할 계획입니다. 기업 현실은 냉혹하여 경쟁에서 2등은 설 자리가 없으며 오직 1등만이 살아 남을 수 있습니다. 올해는 토끼해로, 토끼는 다산을 상징하

며 높은 생산성으로 번성할 수 있는 것을 나타냅니다. 사업을 다변화하고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며, 합작/제휴를 통하여 기술력과 경쟁력을 확보하는 부단한 노력을 경주해야 하였습니다. 이를 위하여 무엇보다도 내자신이 인주하려는 구슬에서 벗어나 스스로 변해야 한다는 명제를 되뇌이며, 의식 혁신을 통한 변화 추구를 위하여 8대 신조로 각오를 다져봅니다. ① 나는 적극적이다. ② 나는 합리적이다. ③ 나는 부지런하다. ④ 나는 끈기가 있다. ⑤ 나는 목표가 있다. ⑥ 나는 나의 능력을 믿는다. ⑦ 나는 나의 일이 자랑스럽다. ⑧ 나는 나의 일로서 고객을 만족시키고 조국에 기여한다.



설계부문 담당

최홍렬 상무

2011년 새해를 맞이하여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 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난 2010년은 예상하지 못한 수주물량 증가에 설계인력 부족과 대차 미흡으로 어려움이 많은 한 해였습니다.

특히 제작도 출도 지연으로 조달, 생산 등 관련부서를 힘들게 한 것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사과드립니다.

2011년 또한 어려운 한 해가 예상되지만

선보가족 모두가 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한다면 좋은 결실이 있을 것이며, 저희 설계부문도 올해를 '설계 혁신의 해'로 정하고 매진하고자 합니다.

ITEM별 설계표준서 및 HISTORY CARD 활용, CHECK SHEET 등 업무 PROCESS를 재 정립하여 반복되는 오작을 근절하고, 설계 기간을 단축할 것입니다. 또한, ERP업무도 재 정립하여 모든 업무를 전산으로 처리하면서 간소화 되도록 추진

할 예정입니다.

설계 물량절감 5%를 목표로 표준화 설계, 유사선 활용 등을 제도적으로 추진하고 결과를 분석 반영할 예정이며, 설계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설계 품질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계획입니다.

다시 한번 2011년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는 설계부문을 약속 드리며, 선보가족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영업공장 담당

정호경 상무

선보가족여러분 신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2011년 내내 건강하시고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선보하이텍에서 근무한지가 벌써 일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다들 말해서 불철주야 영암 군산공장에 지원을 아끼지 않는 모든 분들께 머리 숙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생산성 향상으로 부러 하나 하나 최선을 다

하여 보답하겠습니다.

지난해 국내의 열악한 환경에서도 서해안 시대는 무안한 경쟁력을 가지고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이 때에 저희 선보도 서해안 시대에 발맞추어 빠르게 경쟁력을 갖추어야 많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각오로 체질개선과 경쟁력 있는 제품생산에 힘써야 하였습니다.

신묘년 새해를 맞이하여 선보하이텍 전 임직원은 심기일전하여 서해안시대에 새로

운 도약의 한 해가 되어야겠습니다.

다시 한번 선보가족 모두에게 건강과 행복이 넘치고 좋은 일들만 가득한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선보 파이팅...



구명공장 담당

강보영 이사

선보가족여러분 반갑습니다. 2011년 신묘년희망의새해가 밝았습니다. 새로운 해를 맞이하는 경건함과 설렘이 가득한 시기입니다. 번창과 풍요를 상징하는 토끼처럼 계획하신 바 모두 이루시는 넉넉한 한 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지난 2년간 우리는 세계적인 금융위기의 여파로 참 어려운 시기를 보냈습니다. 올해에도 경기 둔화로 인한 대내외적으로 극복할 사항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선경기는 수주감소로 인한 정체국면으로 접어드는

등갈등이 고조되고 있고, 세계경제도 자성장기 조가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년간 눈부신 성장을 이뤘으며 얻어낸 선보가족 모두의 열의와 자신감을 바탕으로 다시 험난한 난관들을 극복하고 어떠한 경영환경에서도 성장발전할 수 있는 강한 기업을 만들기 위해 매진해야 하였습니다.

과거의 성취감에 취하여 계속 한자리에 머무른다면 과거의 성공에 고인 물과 같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고인 물은 바다에 이르지

못하고 결국 썩어버리기 마련입니다. 늘 깨어 있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항상 배우는 자세로 자신을 갖추어 나아가, 고여 썩어지는 물이 아닌 넓은 바다로 흘러나갈 수 있는 선보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2011년은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여 지난 해보다 더 많은 성과와 더 큰 발전을 창출해 낼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지혜롭고 총명한 토끼처럼 힘차게 도약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선보 가족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사업부문 담당

김청욱 이사

시길 기원합니다. 사랑하는 선보가족여러분. 지난 2010년의 영업환경은 매출/수주에 있어 너무나 가혹한 한해로 아쉬움을 남긴 채 새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 여전히 그 어둡고 기나긴 터널은 끝은 지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이 우리를 한층 성숙시키고, 또한 제2의 선보를 만들기 위한 든든한 주춧돌이 될 것이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러한 위기와 기회의 2011년은 우리가 목표한 vision 2012 고민하고 또한 회사의 중장기 성장방향을 재점검하고, 전진할 수 있는 중요한 한 해를 위해 저희 사업부에는 아래의 사항에

대해 중점 추진코져 합니다.

첫째, 매출 구조의 변화입니다. 불확실한 현재 조선 unit에 당사의 매출이 99%가 유지되고 있고, 이에 따른 우리 성장 전략 또한 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신 성장동력 기를 마련에 모든 부문의 모든 역량을 집중코져 합니다.

둘째, 기존 산업의 1위 체제 유지입니다. 불확실한 환경에, 생존을 위한 유일한 전략은 바로 경쟁력 1위 회사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 사업부문의 핵심 실명개체는 실명예산 시스템의 완성과 동시에 모든 프로세스가 예산이 관리되어지는 프로세스로의 운영입니다.

셋째, 업무 프로세스의 혁신입니다. 세계는 끈임없이 초고속도로 변화하고 있고, 그 변화에 따라 관련된 모든 프로세스가 변화되고 있습니다. 우리 사업부문은 현재의 업무 방식을 탈피하고, 모든 업무를 전산화를 통해 급변하는 영업환경에 보다 신속하고 빠른 판단이 가능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현재의 어려움이 우리의 밝고 희망찬 새해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2011년 모든 가족들과 파이팅 의지해 힘차게 출발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영지원 담당

전재욱 이사

2008년 들도 보지도 못했던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촉발된 금융위기가 3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미국발 금융 위기는 전 세계 경제를 혼란과 침체의 늪에 빠지게 만들었으며 급기야 우리가 몸담고 있는 조선산업 전반에 걸쳐 불황을 몰고 왔습니다.

10년 이상 지속된 조선산업의 호황 속에 지칠 줄 모르고 달려온 우리 선보가족도 지난해 창사 이래 처음 마이너스 성장을 한 해가 되었으며, 더욱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우리의 위기는 이제 시작에 불과한 것이라는 현실입니다.

작년 연말부터 각 공장별, 부문별로 경영목표 달성을 위해 많은 노력과 고생하고 있는 선, 후배 동료들을 보면서 지원부서를 맡고 있는 저로서

는 어떻게 하면 노고에 대한 보람을 느낄 수 있고 즐거운 마음으로 회사에 근무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해야 할까? 많은 고민 속에 피속한 마음, 안타까운 마음 속에 있습니다.

지원부서가 제 역할을 해야 전 임, 직원들이 편안하고 행복한 직장생활을 할 수 있기 마련인데 그 역할을 제대로 해내지 못해 많은 불편과 불합리했던 행정처리에 대해 지면을 통해 다시 한번 전 선보가족에 피속한 마음 전합니다.

2011년 신묘년 새해에는 합리적인 제도와 규정 시행, 전 가족이 동참하고 즐길 수 있는 가족 친화 행사 기획, ERP시스템의 안정화와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업무 효율증대, 합리적인 행정 처리를 통해 전 선보가족들이 직장생활에서 삶의 활력과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선보가족들이 힘들게 이루어낸 성과들이 헛되게 낭비됨이 없이 관리, 운용하고 적재적소에 사용되어 우리의 미래와 성장, 발전에 기틀이 되도록 성심성의를 다하고자 합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이라 생각합니다. 항상 밝고 건강하게 무재해 직장을 실현하여 직장생활이 행복한 삶의 원천이 될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합니다.

신묘년 한해 우리 선보가족 모두가 행복한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하며, 직장과 가정 모두에서 인정받고 성공하는 아빠 엄마, 아들 딸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2010년 한해를 정리하며

2010년을 마무리하는 종무식이 지난 12월 31일 사내교육장에서 열렸다. 최금식 대표이사는 이날 종무식에서 "올해는 마이너스 성장이라는 최악의 기록을 남긴 한해이지만 국가생산성대상 대통령상을 수상하고 군산공장을 준공하였으며 최악의 성적을 기록하던 영암공장이 종합성과 1위를 차지하는 등 선보의 무한한 잠재능력을 볼 수 있는 한해였다"고 격려했다. 한편 종무식에서는 한 해를 마무리 하는 케익 절단식과 함께 우리 회사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한 임직원들에 대한 시상도 함께 진행됐다.

■ 2010년 경영성과 대상 수상자

경영성과대상-임원부문 영암공장 정호경	경영성과대상-반생산부문 대상 영암공장 배관반 정봉주	부산시장 표창 개발설계장호길 자재조달2팀 이동준	우수 사원상 경영지원 임기봉 품질경영 방대혁 경영지원 황수영	1공장 강현욱 1공장 장세철 1공장 솔리친 1공장 임인혁 1공장 조재현
경영성과대상-부사장부문 영암공장 박원석 자재조달1팀 최동배	경영성과대상-반생산부문 우수상 2공장 출하준비반 김지삼 2공장 조립2반 장상권	산업인력공단 부산본부장 표창 사업기획장철민 영도공장 선각관리 김태경 생산관리1팀 정재현	자재조달1팀 권구연 자재조달1팀 김혜민	2공장 김종민 2공장 최봉순
경영성과대상-팀장부문 설계2팀 장호신	특별상-생산성대상 사업기획 이재민	사하구청장 표창 자재지원반 김기주	영업1팀 문해기	3공장 강동주 3공장 우던
경영성과대상-단체부문 대상 영암공장 생산관리/품질보증 1공장 자재조달 1공장 설계2팀	부산상공회의소장 표창 영도공장 최성호 자재지원 조정선	모범 사원상 설계5팀 김갑진 영업1팀 이철우 생산관리2팀 김문철 구평공장 생산관리 김광욱 영도공장 의장관리 김택현 영암공장 물류자재 김덕현	설계2팀 이재광 설계3팀 정민규 설계4팀 신유철 설계5팀 유병창 설계6팀 오창배 설계7팀 오승관	구평공장 박춘복 영암공장 타엔 영암공장 최승철 영암공장 김충명
경영성과대상-단체부문 우수상 구평공장 생산관리/품질보증	중소기업진흥공단 부산본부장 표창 생산관리3팀 신성인 자재지원 김동섭			영도공장 김지훈 영도공장 박우근
경영성과대상-안전/화합 우수상 2공장 생산관리				



Inside SUNBO 회사 소식

2011년 경영목표달성 전략 워크숍 개최



우리 회사는 지난 12월 4일 대표이사와 상임고문, 부사장 및 팀장이상 관리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 해양대학교 국제교류협력관에서 '2011년 경영목표달성 전략 워크숍'을 실시하였다.

이번 워크숍은 △ 2011년 경영목표 달성을 위한 목표의식 제고, △ 위기 극복을 위한 전사일체감 형성 △ 경영 목표달성을 위한 리더의 자발적 몰입 유도를 목적으로 부문별로 올해 사업 실적을 평가하고 내년 사업계획을 발표하고 공유하였다.

이날 대표이사는 개회사를 통해 올해 목표달성을 위해 노력한 임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선보는 많은 변화를 하였으나, 아직도 변화와

도전에 두려워 한다. 변화의 중심에 당당하게 서서 자기가 맡은 일에 끝까지 책임지고 실천하는 리더가 되어주길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또한 모든 사업계획 발표 후 상임고문은 강령사를 통해 "사업계획의 주인은 조직의 장이며, 핵심은 목표와 실천계획이다. 목표(KPI)는 상위 목표 분담정도이고, 실천계획은 조직(부하)에 대한 작업명령서다. 따라서 리더는 분명한 비전과 구체적인 방법을 가지고 조직원에게 설명하여 지원하고 솔루션수법해야 한다. 그лай만 조직원이 수행된 명령을 이해하고 공감하며 더 나아가 감동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관리자의 책임은 목표달성이고 수단은 명령하는 일과 확인하는 일"이라며 리더의 역할을 다시 한번 당부하였다.

Inside SUNBO 회사 소식

2011년 생산성향상을 통한 조선불황 극복 다짐!



우리 회사는 지난 12월 30일 대표이사와 부사장 및 상임고문과 임원진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1년 생산성향상 결의대회를 실시했다.

이번 대회는 팀별, 협력사별 생산성향상 목표를 설정하고, 구체적인 달성 실행계획서를 수립하여 발표, 공유함으로써 실질적인 생산체질 개선 및 강화를 통하여 2011년 조선불황을 극복하기 위해 열었다.

이날 대표이사는 대회사를 통해 "한해를 가족 같은 분위기에서 무재해로 마무리 짓게 되어 감사하게 생각한다. 강한 영업 및 고객이 영업을 창

출하게 하기 위해서는 생산일선에서 생산성향상, 최고품질, 납기준수가 뒷받침되어야 가능하다"고 전하며 "2011년에는 책임 생산과 더불어 공법개선, 빠른 변화, 무재해 사업장을 달성해달라"고 당부하였다.

또한 상임고문은 강령을 통해 "생산성향상 실행계획의 주인인 생산팀장과 소장이 이를 실천하는 부하직원들의 이해와 감동을 이끌어 내지 못한다면 20% 초과 달성은 어렵다. 반드시 오늘 발표한 실행계획들이 실천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확인하여 목표가 초과 달성될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하였다.

2010 주요행사

1월 1일 우리 회사 최금식 대표이사 해양육성사업 조선훈과 위원장 위촉

우리 회사 최금식 대표이사는 부산시가 지정한 '해양산업 육성화에 대한 조례법'에 따라 부산시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해양육성사업의 조선훈과 위원장에 임명되었다. 앞으로 최금식 대표이사는 해양산업 육성사업을 위탁, 해양산업지원 기금 조성 운용, 해양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한 국내기업의 유치 및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 등의 활동을 하게 된다.

1월 "ART IN SUNBO" 전시회 열리



우리 회사는 평소 지역과 함께 공존하는 회사를 만들기 위해 부산 예술 문화 발전을 위해 "부산 꽃마을 국제자연예술제" 등을 후원하였다. 이에 문화 단체가 후원 기업에게 감사의 뜻으로 찾아가는 문화 전시회 "메세나 협력 공공 미술 프로젝트 ART IN SUNBO"라는 이름으로 우리 회사 본사에서 현대 미술 전시회를 열었다. 이 전시회를 통해 기업 이미지 개선과, 평소 현대 미술을 어렵게 생각하고 미술관등을 찾지 힘들었던 근로자들에게 문화 예술을 향유하는 기회가 제공되었다.

2월 3일 공장별 안전결의대회 실시



우리 회사는 무재해 사업장을 염원하며 1공장을 시작으로 4일 구평공장, 5일 영도공장, 9일 2공장에서 안전결의대회를 가졌다. 안전교육시간을 통해 진행된 안전 결의 대회는 지난해 무재해 달성을 이어받아 올해도 안전사고 없는 사업장을 위해 노력하는 취지로 진행됐다.

3월 뮤지컬 단체 관람

3월 6일부터 9일까지 우리회사는 직원들과 직원 가족이 문화 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단체 연극 관람 표를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이에 직원들은 가족들과 함께 오랜만에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3월 13일 현장 리더의식 고도화 교육

우리 회사는 양산 해운청소년 수련원에서 전 공장 반장이상 현장관리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반장중심 조직의 관리능력 향상을 위한 '현장리더 의식고도화 교육'을 실시하였다. 반장중심 조직관리 능력 향

상을 위한 자기혁신, 신사고, 리더십 개발을 통하여 생산성향상과 신 조직문화 구축을 위한 현장리더의 맨파워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4월 9일 STERN TUBE UNIT 납품

우리 회사는 산성 1807 호선용 STERN TUBE UNIT를 성공적으로 납품하였다. 이번 납품한 STURN TUBE UNIT는 총 길이 14m로 국내 최장의 길이이며 우리 회사 첫 납품일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최장 길이 첫 제품으로서 국내의 조선소 및 해외에서도 뜨거운 관심을 가지고 견적 요청 및 현장 방문 등이 이어졌다. 또한 관련 4층의 특허 취득으로 그 의미가 더욱 깊다.

4월 24일 체육대회



우리 회사는 영도 어울림 한마당에서 2010년 전사 체육대회를 개최 하였다. 영암공장에서 50여명의 직원이 참석해 자리를 빛내주는 등 단합된 선보인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5월 16일 부산국제마라톤대회 단체 참가



우리 회사는 매년 2회씩 국제신문에서 주최하는 마라톤 대회에 참가해오고 있다. 2010년에도 많은 인원이 참여하여 업무로 인해 평소 소홀하기 쉬운 건강을 증진시키고 대회를 통한 단합심과 애사심을 고취했다.

5월 금연클리닉 금연사업장 실현위한 실천

우리 회사는 직원들의 복지 향상과 건강 증진을 위하여 전 공장을 금연사업장으로 선정 하고 매주 공장별 금연상담을 개인별로 실시하였다. 금연상담에서는 금연보조제 무료 지급, 심박수 측정, 담배의존도 테스트, 금연 홍보영상 상영 등의 행사를 했으며 회사 출입구에 금연 현수막 및 금연 전광판을 설치하여 자연스럽게 금연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6월 12일 위기극복 한마음 워크샵 열리

조선 불황기 우리 회사의 수주현황과 전망을 공유하고 전사적 위기극복과 상호협력 마인드 셋업을 목적으로 경영진, 공장장, 소사장단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상생협력력을 위한 한마음 워크샵을 실시하

였다

6월 15일 "만남의 장" 열리다

우리 회사는 서면에 위치한 부산 롯데호텔에서 미혼 직원 중 신청자 20여명과 상대자 20여명으로 구성된 총 40여명이 "만남의 행사"를 가졌다. 평소 회사일에 매진하여 연애의 기회를 가지기 힘들었던 미혼 총각 사주들을 위하여 마련한 이번 "만남의 장" 행사에서는 서로 다른 환경에서 생활하는 이성과의 만남을 통해 서로의 인연을 이어가도록 도와주었다.

7월 1일 제24주년 창립기념일 행사



"제24주년 창립기념일 행사"가 서면 필리오테 6층 솜사탕 아트홀에서 열렸다. 이것은 평소 목표달성을 위해 업무에 최선을 다한 임직원들의 노고를 취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마련되었다. 창립기념일 행사를 축하하는 경영진의 케익 전달식을 시작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회사 외부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준 솜사탕 아트홀 대표이사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기도 했다. 이어 진행된 우수사원상 시상식에서는 총 50여명의 모범적인 사원을 부서별로 선발했으며, 해당 직원들에게 각 상금 20만원 및 상패를 전달했다.

7월 10일 경영목표달성 하반기 워크샵 개최

대표이사 및 상임고문, 부사장을 모시고 전사 임원 및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해양대학교 산학협약센터에서 2010년 하반기 경영목표 달성을 위한 워크샵을 가졌다. 2010년 하반기 경영목표 달성 워크샵은 '이기는 경영실현'이라는 키워드를 통해 획기적인 경영 성과 달성의 의지를 확고히 하고 전 임직원의 단결을 더욱 굳건히 할 수 있었던 자리가 되었다.

7월 26일 현장소통, 상생협력강화 간담회

7월 26, 27일 양일간 사내협력사 소사장 등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소통 및 상생협력 강화 대표이사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간담회는 대표이사가 직접 '일체화된 사내협력관계'를 실천하고자 지속적인 상생협력 추진을 위한 아이디어, 신뢰를 기반으로 한 생산성 제고 방안, 현장 고충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단합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9월 사내생산성향상 우수사례 경진대회

우리 회사는 사내 생산성 향상 우수사례 발굴 및 공유, 성과확산을 위하여 지난 9월 6일 상임고문 및 임원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내생산성향상 우수사례 경진대

회"를 개최했다. 최종 프레젠테이션 경쟁에서는 "스트레이너 JIS 필터 및 노즐개선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주제로 발표한 대3공장(리더:신성인 과장)이 대상을 차지했다

9월 대선주조와 지역기업응보 캠페인 제품 전달식 가제

우리 회사는 지난 9월 16일 대선주조내 대회의실에서 시원소주 및 라벨에 우리회사 광고가 실린 소주 500만병이 생산되는 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제품 전달식을 가졌다. 대선주조 창립 80주년을 맞이하여 9월 3일부터 진행된 캠페인은 지역경제활성화라는 취지아래 지역 우수 업체를 발굴하여 홍보함으로써 지역 업체 간 상호 상생을 도모하고 지역 업체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하여 진행되었다.

10월 제1회 선보가족 그린등반대회



지난 2일 금정산에서 등산동호회의 주최로 제1회 선보가족 그린등반대회가 열렸다. 이 행사는 업무에 지쳐있는 사원들에게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기회와 동시에 금정산 주변 환경 정리를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약 500여명의 사원이 참가하여 선보인의 단합된 모습을 볼 수 있었다.

10월 '사내학습소 최종성과경진대회' 열리



우리 회사는 장명우 상임고문 및 임원, 학습조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0년도 사내학습소 최종성과경진대회"를 가졌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2회를 맞이하는 이번 대회에는 총 15개 학습소 110여명이 8개월동안 학습 및 연구한 주제에 대해 성과를 발표하고 공유하였다. 최우수상은 '정반이와 절감이(조장:영도공장 표종원 과장) 조가 '작업방법 및 관리방법 개선을 통한 원가절감'이라는 주제로 수상하였다.

11월 14일 제12회 부산 마라톤 대회 개최

국제신문에서 주최하고 부산광역시에서 후원하는 제12회 부산마라톤대회가 다대포해수욕장에서 개최되었다. 우리 회사 직원 80여명이 평소 소홀하기 쉬운 건강관리를 위해 10Km코스에 참여하여 건강증진을 도모하였다.

2010 수상 및 인증

제34회 국가생산성대상 종합부문 '대통령표창' 수상



서울 코엑스(COEX)에서 개최된 '2010년 제34회 국가생산성대회'에서 우리 회사가 곁경사를 맞이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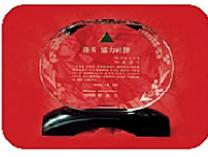
먼저 중소기업 종합대상부문에서 최고의 훈격인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이는 1997년 한마음 운동, 2003년 LIFT 21운동, 2007년 경영혁신운동 등 지속적인 생산성향상 혁신활동을 체계적으로 추진한 결과로, 탁월한 경영성과 달성 및 생산성 경영시스템 수준의 우수성 등을 인정받아 수상하게 되었다.

시상식에서 대표이사는 최경환 지식경제부장관으로부터 대통령표창과 함께 대통령표창 수치를 회사기에 전수받았다. 올해로 34회째를 맞이하는 국가생산성대상은 지식경제부가 주최하고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주관하는 경영의 과학화, 시스템화를 통한 체계적인 기업경영과 혁신활동을 통하여 모범적인 생산성향상을 이룩한 기업 및 단체에게 수여하는 정부시상제도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 회사는 국가생산성 챔피언 경진대회의 결과 "장려상"을 수상의 영예 또한 안았다. 지난 7월에 우리 회사는 "선보현장혁신 우수사례"라는 주제로 이경식 생산팀장이 참가하여 전국 12개의 기업과 프레젠테이션 경진을 실시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수상하게 되었다.

현대 미포조선 협력업체 감사패 받아

우리 회사는 1월 22일 미포조선으로부터 어려운 경영환경에도 불구하고 미포조선의 품질경영에 적극 동참하여 우수한 품질의 제품을 적기에 공급하여 미포조선 발전에 기여한 바가 커 우수협력사로 선정되어 감사패를 받았다. 또한 우리 회사는 최고 품질의 제품을 생산하여 적기에 납품 함으



로써 국내 메이저급 조선소로부터 매년 품질우수감사패를 받아 오고 있다.

부산시로 부터 모범 납세자 표창패 받아

우리 회사는 부산광역시청 1층 대강당에서 열린 2010년 모범납세자 표창 수여식에서 모범납세자 표창패를 수상했다.



다. 모범 납세자로 선정됨에 따라, 부산은행과 농협을 통한 대출, 또는 예금시 0.5% 범위 내에서 우대 금리가 적용되고, 부산신용보증재단 보증을 받는 경우 보증 수수료를 0.1% 경감되는 혜택이 1년간 주어진다.

삼성중공업 Q-MARK '골드' 등급 인증받아

우리 회사가 조선비치호텔에서 열린 성조회(삼성중공업 협력사 모임) 정기총회에서 삼성중공업 품질 Q-MARK '골드' 등급을 인증 받았다. Q-MARK는 삼성중공업이 협력사를 대상으로 기술수준과 기자재 수준을 평가해 품질 인증을 하는 활동이다. 우리회사는 지난해까지 '실버' 등급을 유지하였으며 최근 사내 품질 향상 활동과 라인 QC 정착 등을 통해 평가 받아 '골드' 등급으로 상향 인증됐다.



상생형 PMS 인증사업 업무협약



본사 교육장에서 최금식 대표이사 및 한국생산성본부 이춘선 상무, 그리고 협력사 CEO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상생형 생산경영시스템(PMS) 인증사업 협약식 및 발대식'을 개최하였다.

지난 2007년 PMS(생산성 경영 시스템) 인증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바 있으며, 이번

상생형 PMS를 통하여 협력 회사로 PMS를 전파하여 협력사가 PMS 심사기준에 의거 내부역량을 객관적으로 평가·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경영역량 향상과 경영혁신을 활성화함으로써 모기업과 협력사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이다.

제28회 부산산업대상(근로복지부문) 수상



우리 회사의 최금식 대표이사가 제28회 부산산업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최금식 대표이사는 11월 30일 부산상의홀에서 열린 제28회 부산산업대상 시상식에서 근로복지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부산산업대상은 부산상공회의소가 제정·시행하고 부산시가 후원하며 지역 상공업 발전을 위해 10년 이상 헌신해온 인사 가운데 매년 추천받아 심의를 거쳐 선정된다.

제1회 우수 조선키자재업체 인증 수여



최금식 대표이사는 12월 8일 한국조선협회와 한국조선해양기자재조합이 공동 주관한 우수 조선키자재업 인증서 수여식에서 제1회 인증업체로 인증서를 수여받았다. 이 인증은 세계 1위 한국 조선업체의 중소 조선키자재업체 인증을 통해 신뢰제고 및 해외마케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정된 인증제로 조선소 및 유관기관으로 구성된 평가단이 매년 우수 조선키자재업체를 평가하여 인증서 수여 및 사후관리하는 인증제도이다.

제정 원년인 2010년은 현대중공업을 비롯한 국내 6개 대표 조선소에서 추천받은 11개 조선키자재업체를 지식경제부 대·중소협력재단, 상생위 실무위원(조선업체), 한국조선협회, 한국조선해양기자재협회

합, 한국조선기자재연구원 이 평가단을 구성하여 납기준수, 품질수준, 경영상태, 보건 안전 환경 수준, 유관기관 협력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엄격한 평가를 통해 4개사를 선정하였다.

설계부 이정훈 사원 부산시장 표창장 수상



(사)부산복지 총 봉사회 주최, 부산시 후원 장애인 복지 유공자의 부산시장 표창장 시상식이 부산시청 대강당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에서 우리 회사 설계부 이정훈 사원은 장애인의 사회적 인식개선과 재활의지 고취 등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이 크고 자원봉사 등에 솔선수범함을 인정받아 장애인 복지 유공자에게 수여하는 표창장을 수상했다. 이정훈 사원은 지난 2008년부터 지인과 함께 한 달에 2~3번씩 장애인 복지 센터에 가서 지금까지 꾸준한 봉사활동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블우이웃돕기 및 새내근로복지기금 출연



우리 회사는 이웃과 함께하는 회사를 만들기 위하여 회사에서 2천만원,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840여 만원을 모금하여 총 2,800여 만원을 공동모금회(사랑의열매)로 출연하였다. 이로서 이웃돕기 따뜻한 마음을 나누어 한겨울의 추운 바람도 차갑게 느껴지지 않을 훈훈한 정을 나누었다.

한편 우리 회사는 선보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내 근로복지기금을 20여 억원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중 작년 한해 7천여 만원의 복지기금이 선보가족의 복지 지원을 위해 쓰여졌으며 최금식 대표이사는 새해에도 작년에 소비된 복지기금 만큼 선보가족의 복지기금을 출연하였다.

정보보안 10대 실천사항

우리 모두의 노력의 산물인 소중한 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정보보안 10대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십시오.

1. 퇴사자, 경쟁업체 직원, 친분이 있는 사람이 회사의 정보를 요구할 경우 단호하게 거절하여야 한다.
2. 퇴근시 반드시 PC를 종료한다.

3. 자리를 비울 것을 대비하여 화면 보호기는 반드시 5분 이내로 설정하여야 하며 암호로 보호한다.
4. 보안 패치 및 바이러스 백신 패치는 매일 실시한다.
5. 업무에 관련이 없는 사이트의 접근을 삼가한다.
6. 개인 파일전송 프로그램(P2P) 사용을 금지한다.
7. 사내 메신저 이외의 모든 메신저는 바로 삭제한다.
8. 복사실 및 복사기 프린터 주위에 도면 및 서류가 방치되지 않도록 한다.
9. 주요 문서는 시건 장치에 있는 곳에 보관하며 퇴근시 반드시 잠근다.
10. 주요 문서 및 도면은 휴지통으로 바로 버리지 말고 반드시 파쇄한다.



2010 칭찬릴레이 열전!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칭찬은 선보를 더욱 굳건하게 만든다! 2010년 11명의 칭찬받아마땅한 선보의 일꾼이 칭찬릴레이주자로 선정됐다. 선보의 숨은 일꾼으로, 분위기를 메이커로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선보 칭찬릴레이 수상자를 다시 만나보자.

2월

선보의 메모왕 박관호 주임은 선보에 입사한 지 5년 차보 사급을 남남하고 있다. 언제나 꼼꼼하게 체크하며 완벽하게 맡은 바 일을 해내는 그는 주인의 식을 가지고 항상 최선을 다한다고 한다. 동료들과도 언제나 웃고 즐기며 회사생활을 하고 싶다는 그는 "모르는 게 있으면 공부하고 회사와 함께 성장하며 회사에 보탬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다" 고 자신의 포부를 전했다. 늘 앞을 향해 나가는 박관호 주임의 앞으로가 기대된다.



다. 지체 없이 일을 처리해야 하기에 날카로운 신경전이 잦지만 그럴때일수록 웃음을 잃지 않고 상대방 입장에서 먼저 생각하여 좋은 분위기를 이끌어 간다. "그냥 될 대로 되라는 식의 사람보다는 난 꼭 하고 싶다고 단호히 해왔다는 사람들이 더 분명해보인다. 상대방에게 끈질기게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다" 는 강현욱 사원의 앞으로 이어질 힘찬 발걸음을 기대해본다.



제 역할을 하고, 서로를 배려할 때 만들어지고 완성되는 것이 바로 회사라고 생각한다 그는 항상 나 하나보다는 우리를 생각한다. "누구 하나 질한다고 해서 잘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서로가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라고 믿어요. 퍼리로는 제품에 대한 주인의식을 갖는 것이 중요하고, 몸으로는 함께 일하는 동료들을 도와주는 것을 옳다고 생각해요" 늘 나보다 우리를 생각하는 추용환 직장이 있기에 하나 된 선보의 희망찬 미래를 꿈꿔본다.

신경 쓰고 있어요. 때로는 부담이 되기도 하지만 본사에서 나온 제품이 모두 저의 손을 거친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뿌듯하고 더 보람을 느끼게 되요" 이번 칭찬이 부끄럽지 않게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다는 신성호 주임의 앞으로를 기대해본다.

3월

와장 생산파트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탁현 과장은 꼼꼼한 확인으로 불량률 제로를 위해 늘 힘쓴다. 항상 납품 전 총괄적인 확인을 도면으로 눈으로 한번 더 검사해 불량률 체크한다. 업무 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귀찮고 사소한 일이지만 그로써 불량률이 줄어 모기업이 만족해 하는 모습을 보면 자신의 일에 보람을 느낀다고 한다. 메인테크와장 쪽이 주담당인 그는 자신의 분야에서 전문가가 됨은 물론 앞으로 성장해 나갈 플랜트 쪽 일도 배워 선보와 함께 발전추어 성장하고 싶다고 그 포부를 전했다. 일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지닌 그의 앞으로를 기대해본다.



이전에 일하던 곳의 베트남 출신 직원의 소개로 낯선 땅에 오게 된 디엔은 현재 탱크탑 분야에서 일하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 중에서는 처음으로 칭찬릴레이의 주인공이 된 디엔이 선보와 인연을 맺은 지도 벌써 2년이 다 돼간다. 아직까지는 도면을 보는 일 등 낯설고 어려운 부분이 많지만 차근차근 배워가는 과정이 즐겁기만 하다고 한다. 타국으로와 힘든 일이 많지만 언제나 웃음을 잃지 않고 맡은 바 일을 믿음직스럽게 해내는 디엔 선보인으로 인정받았다는 생각에 더 열심히 일하겠다는 디엔의 미래가 기대된다.



9월

전기 용접기 관리 및 수리 담당 업무를 하고 있는 영도공장의 양건석 반장. 그가 선보에서 일하기도 벌써 4년이 넘어간다. 혼자 작업하는 일이 많아 어려움을 때도 많지만 동료들이 그를 알고 옆에서 도와주기에 힘이 난다는 그는 흔들림없이 자신의 일을 해내는 그야말로 '훌륭한 일꾼'이다. "꾸준하게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해요. 그 믿음으로 일을 하다보니 어느새 선보가 내 평생일터다 라는 마음이 생기자라구요"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내는 양건석 반장. 앞으로도 소신 있게 자신의 일을 충실히 해 나가는 그의 모습을 기대해본다.



12월

늘 새벽같이 출근하여 굶은 일도 마다않는 배관팀의 김창영 사원은 언제나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모습이 아름답다. 일을 빨리 익히기 위해 매일같이 도면을 들여다보고 여기저기 묻고 또 물어 본다. 자신의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가 되고 싶다는 그는 선보가 내 마지막 직장이라 생각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 일할 것이라 한다. "일을 더 많이 배우고 더 빨리 익혀 누가 봐도 정말 잘하고 최고가 되도록 노력할 겁니다"



4월

납품·사급자제를 담당하고 있는 이경화 계장은 언제나 고객에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맞춰서 납품할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한다. "때론 설계 오작, 업체 오작 등으로 인해 관리자들이나 현장직업자들이 고생하는 걸 보면 안타깝지만 모든 문제를 완료하고 엔지니어블 북에 우리 유니트가 모두 탑재되어 있는 걸 볼 때면 그동안의 고생에 대한 보람을 느낀다" 작업자의 입장에서 배려할 수 있는 관리자가 되고 싶다는 그는 일할 때 서로 배려하고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한다.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앞서나가도록 하겠다는 그의 다음이 기대된다.



여기 선보의 미래를 그리고 있는 이가 있다. 바로 최광욱 팀장이다. 사이렌스와스테레나 용접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그는 17년 동안이나 선보에 몸담으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선보인으로서의 자부심이 가득하다. 쪼그라들지 않는 시간동안 꾸준히 일을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가족들과 오랜 시간 함께 한 동료들이었다는 그는 제품이 자신의 손을 떠날 때마다 그 제품이 곧 자신의 얼굴이 된다는 생각으로 이해왔다고 한다. 앞으로도 빈 공간에 그림을 채워 나간다는 자부심과 주인의 마음으로 선보를 위해 힘쓰겠다는 최광욱 팀장. 그의 완성된 그림은 어떤 모습일지 기대해본다.



10월

자신을 표현하는 것이 서툴러 무뎠다 못해 보이지만 그 누구보다 선보를 향한 열정적인 마음을 지닌 영양공장의 김동현 소장. 일에 대해선 프로정신을 가지고 책임감있게 행동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그는 평소 남기와 품질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작업에 임하고 직원들에게도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다. 조선경기 불황을 극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는 언제나 회사에 보탬이 되고 필요한 선보인으로 남고 싶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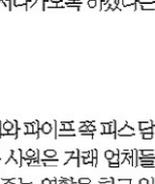


Run SUNBO Run 축하합니다

생일	다대공장
출산 1공장	정민규(1/23), 이철훈(1/27) 이창원(1/5), 강정민(1/9) 고성현(1/23), 신인호(1/21) 이한수(1/29), 이재원(1/21) 임인혁(1/16), 조소희(1/15) 조경선(1/8), 서원수(1/18), 강종민(1/21), 정성규(1/22) 이도희(1/30), 채규민(1/25)
2공장	이승환(1/29) 이덕수(1/11), 배현호(1/3) 신석영(1/23) 안태준(1/30), 김태영(1/20)
3공장	이영수(1/20), 김태영(1/20) 윤호동(1/3)
광진공업	이영길(1/26), 박성우(1/27)
재원ENG	
신석ENG	
우성ENG	
기술개발	
금천산업	
광진공업	
구평공장	
생신관리	윤용남(1/7)
사재운영	박준복(1/28)
품질보증	김현우(1/9)
평진산업	손종필(1/21), 이재용(1/9), 이성일(1/21), 차운홍(1/21)
서경프랜트	한동근(1/18), 김영근(1/23) 박경철(1/5), 이윤석(1/1)
보성산업	김태준(1/30), 송정호(1/30), 송기열(1/25)
하필테크	이정일(1/4), 정종현(1/5) 김광중(1/3)
설계	
영도공장	
품질보증	박성기(1/28)
입사기념일	
다대공장	
입원	최홍필(1/7)
해일사업팀	이우철(1/25)
기술연구소	장두승(1/1)
고객지원	전철민(1/1)
1공장	차성오(1/1), 장형우(1/2), 배희진(1/2) 김옥민(1/1), 송유래(1/1), 정수용(1/2) 장국현(1/4), 김영익(1/4), 안병식(1/4)
2공장	채규민(1/8)

5월

물류운영팀에서 자재와 파이프족 피스 담당을 맡고 있는 강현욱 사원은 거래 업체들의 긴급한 일을 처리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



8월 한마디 한마디에 진심이 우러나오는 추용환 직장은 탱크탑 유니트 분야를 전문적으로 맡고 있다. 개개인



11월

전장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신성호 주임은 벌써 선보인이 된 지 5년이 넘었다. 전장팀은 주로 혼자 작업하는 일이 많기에 그는 더욱더 책임감을 가지고 신중하게 맡은 일을 해나간다고 한다. "언제나 최종검사를 잘 통과해야 하기에 하나의 제품을 만들 때 그 완성까지 늘 주의하고

